

국어 _ 단언컨대 올리기 가장 힘든 과목

01. 독서와 문학

국어라는 과목을 뜯어봅시다. [선택과목 (화법과 작문 & 언어와 매체) + 문학 + 독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선택과목의 경우에는 따로 다루지 않으려고 합니다.

결국 국어는 ‘누가 더 쓰인 글을 잘 이해하는가’가 본질인 과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공부해야 할 대상은 메타인지 법에 의해 [글이 쓰이는 원리] & [이해하는 방법]일 겁니다.

아주 많은 학생들이 그냥 여러 번 시도하고 노력하면 국어 점수가 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문제를 풀면서 자신이 이해하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글이 쓰이는 원리]를 아예 공부하지 않으면 당연히 이해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문제를 푸는 것 역시 이해하는 연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대로 [이해하는 방법] 자체를 공부하려면, 지문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그렇다면 지문 분석은 무엇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가?

당연히 [글이 쓰이는 원리]에 근거하여 앞에 있는 지문을 분석해서 원리를 체득하고, 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인 [이해하는 방법]까지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핵심은 내가 그냥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컨디션이 어떻든 그 지문을 접하기 전의 내가 언제나 이를 처음 만났을 때 이해를 쉽게 하려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사고과정을 거쳐야 이해를 해낼 수 있을지를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기가 이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러나 이해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는 사실을 수능 보기 전까지 대다수의 사람들이 몰라 제대로 된 국어 공부를 해보지도 못한 채 수능 국어를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지문 내용 자체보다는 지문의 특성에 따라 어떻게 이해했으면 좋았는지 방법을 만들고 이를 다른 지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하여 [이해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까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봅시다. 앞으로 우리는 두 가지를 따로 공부한 후 접목시킬 겁니다.

I. 글이 쓰이는 원리

II. 글을 이해하는 방법

그저 이해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쓰면 누구나 그 글을 이해할 수 있는 사고의 흐름과 순서를 연구해내는 것이 바로 국어 공부인 것입니다. 지문마다 최상의 이해 방법을 찾아보면서 비슷한 것끼리 묶어 유형을 만들고, 중국에는 하나의 굵직한 방법으로부터 조금씩 변형을 하여 모든 지문을 파헤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I. 글이 쓰이는 원리]에 대해 공부해봅시다. :D

1. 글이 쓰이는 원리 _ 독서

Intro.

1. 평가원 지문의 핵심은 [논리]입니다. 일정한 흐름에 맞춰 글이 진행되며, 그 흐름은 모두가 납득이 가능한 것을 말합니다. 이에 따르면 결국 글의 도입부에 '반드시' 앞으로 전개될 맥락을 미리 말해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고를 해야 그에 맞춰 일정한 흐름 즉, 맥락에 따라 글이 진행되며, 그래야 논리적인 글이 되기 때문입니다.
2. 독서 지문은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명확히 있는, 주제가 담긴 글입니다. 따라서 맥락이 가리키는 주제를 단 한 줄로 압축하여 뽑아내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럼 위의 두 원리를 합쳐봅시다.

지문의 모든 글은 맥락에 따라 전개된다. 맥락은 주제를 가리킨다. 따라서 맥락에 지배받는 지문의 모든 줄이 어떻게 주제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방법을 연구해야 국어 공부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글이 주제와 연관되는 원리를 공부하고 이를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생각 회로를 만들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지문들의 논리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주제를 강조하는지, 미시적인 요소부터 시작해서 지문 전체의 유기성을 알아보십시오. 어느 과목이든, 메타인지를 잊지 말자구요. 요소들의 분석, 요소 간 관계의 분석으로 국어를 정복해봅시다.

1st. 정의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하더라도, 지문에서 정의를 내려주는 용어들을 특별히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인문 지문의 경우 우리가 알고 있는 의미와 다르게 쓰일 때가 많으니 정의 Check가 매우 중요합니다.

ex)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_ 22.06.

→ 우리가 아는 ‘과정’은 process이지만, 이 지문에서 쓰인 ‘과정’은 시공간의 변화로 쓰이네요.

이런 경우에 선지에 만약 지문에서 [정의]를 정리한 단어가 나오면, 반드시 지문으로 돌아가 다시 정의를 읽고 선지 판단을 하는 것이 낫습니다. 정의가 내려지는 방식은 방금 본 것처럼 단순히 ‘A는 ~이다.’의 형태가 주로나, ‘~인 A는’과 같이 관형절의 형태로 안겨 있을 때도 있으니 두 형태 모두 알아보도록 연습해야 합니다.

2nd. 전제와 조건

특정 주장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 특정 개념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들입니다. 앞서서 메타인지 예제로 나왔던 [반박=전제 뒤집기]라는 내용도 이로부터 추출된 내용이었습니디. 어차피 전제를 바탕으로 펼친 논리에는 문제가 있기 힘듭니다. 애초에 맨 처음 내린 전제가 잘못됨을 말해야 그 주장과 개념이 틀린 것을 완벽히 증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문에서도 이러한 전제와 조건을 위주로 독해를 하면, 현재 어떤 근거로 반박되고 있거나 어떤 근거로 반박으로부터 기존 논지를 지켜내는지를 알 수 있으니 반드시 독해 시에 챙겨야 하는 요소들입니다.

ex) “변증법의 매력은 ‘종합’에 있다. 종합의 범주는 두 대립적 범주 중 하나의 일방적 승리로 끝나도 안 되고, 두 범주의 고유한 본질적 규정이 소멸되는 중화 상태로 나타나도 안 된다. 종합은 양자의 본질적 규정이 유기적 조화를 이루어 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가 생성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_ 22.11.

→ 변증법은 ‘종합’을 따르며, ‘종합’의 조건은 각각의 두 범주가 한 쪽의 약화 없이, 조화롭게 섞여 발전된 형태(질적으로 고양된 최상의 범주)를 띠어야 한다고 하네요.

[조건]: 소실 없는 조화로운 발전 ∴ 범주의 소실이 나타나면 잘못된 변증법이겠네요. → ‘적중’

ex)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문단의 맨 앞에 있는 문장) _ 22.09.

→ 결론처럼 보이지만, 문단의 맨 앞에 있기에 이를 [전제]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반자유의지 논증의 과정이 제시될 것 같은데 어차피 결론이 ‘자유의지가 없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슨 내용이 전개되더라도 ‘응, 어차피 자유의지 없어~’라고 생각하며 밀고 나가면 독해가 쉬워질 겁니다.

ex) “임의의 선택이 나의 자유의지의 산물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첫째, 내가 그 선택의 주체여야 한다. 둘째, 나의 선택은 그 이전 사건들과 상관없이 무작위여야 한다.” _ 22.09.

→ 자유의지의 조건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따라서, 자유의지와 관련한 내용이 나오면, 이 두 가지 조건에 위배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여 자유의지의 정오를 판단해야 합니다. 앞선 ex와 비교를 하자면,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리기 위해서는 ‘선택의 주체가 내가 아니다’ or ‘선택이 이전 사건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증명해야 할 테니 앞으로 전개될 논증의 방향이 예상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제와 조건은 글 전체를 지배할 강력한 요소이면서 뒷내용을 예측할 수 있게끔 도와주니, 반드시 체크하고 알아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야 합니다.

3rd. 과정과 인과

여러 과정이 나열될 때 그 속에 숨은 인과 관계를 찾아야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정] 자체는 위치만 표시하고, 문제에서 다시 돌아와서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과 관계가 파악되면 자연스럽게 과정이 이해가 될뿐더러 지문 장악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인과 관계를 알려주는 표지는 '-며, -고, 이에 따라서, 이러한' 등이 있습니다. 이전 과정에서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게 만드는 '원인'을 찾아내면 그 원인이 바로 '인과'입니다.

ex) “그는 “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아 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되면 세계 경제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면서도 “반면 적자 상태가 지속돼 달러화가 과잉 공급되면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되고 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될 것”이라고 말했다.” _ 22.11.

→ 과정이 나오고 있으니 번호를 매깁시다. 지문 위에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정1]

①미국이 경상 수지 적자를 허용하지 않음 ②국제 유동성 공급이 중단됨 ③세계 경제의 위축

[과정2]

①미국이 적자를 허용해 적자 상태가 지속됨 ②달러화가 과잉 공급 ③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가 저하됨 ④고정 환율 제도도 붕괴됨

두 과정의 '원인'을 찾아야 [인과]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과정1과 과정2가 서로 어떤 관계인지 우선 생각해봅시다. 과정의 시작인 ①이 역의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과정1: 적자 X / 과정2: 적자 O ... 미국의 적자 허용 여부에 따라 과정이 갈립니다.

각 과정의 ②를 비교하면, '국제 유동성 공급 X' VS '달러화 공급 多'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추론하면, 결국 국제 유동성과 달러화가 동일하다는 것 역시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문장의 위상을 보았을 때 ②까지는 문장 구조가 완전히 똑같습니다. 'A가 ~해서, B하면'의 구조니까요. 따라서 동일한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과정의 시작이 역인 관계이므로 정확히 반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과정1과 과정2의 문장이 다르게 펼쳐지니 같은 인과라고 단정 지을 수 없을 겁니다. 이제 ③부터는 별개로 해석합니다.

과정1: '유동성 공급' ∝ '세계 경제'

과정2: '준비 자산으로서의 신뢰도' ∝ '고정 환율 제도의 안정성'

정리: [적자 허용] ∝ [유동성(달러화)의 공급] ∝ [경제] $\frac{1}{\infty}$ [신뢰도], [고정 환율 제도]

이런 식으로 '과정 사이에서 인과를 뽑아내는 연습'을 해야 일반적인 사용이 가능할 겁니다.

4th. 기준과 경우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능 지문 특성상 일정한 기준이 제시되고, 그에 따라 경우의 수가 분류되는 일이 잦습니다. 이는 도입부에 제시돼 앞으로 글이 어떻게 흘러갈지 미리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경우를 나누는 것은 앞서서 본 과정의 분류처럼 번호를 매기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나누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각 경우의 공통점과 차이점으로부터 [기준]을 추출하는 능력을 견비해야 합니다. 경우를 나누는 표지는 '-나, -와, -고, -며'등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앞으로 'or 표현'이라고 부르겠습니다. or 표현이 나오면 즉시 그 위에 슬래시(/)를 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런지 예시로 봅시다.

ex)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 고향이 변해 있거나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귀향은 미완의 형태로 남게 된다.” _ 15.09.B

→ 고향이 변함 / 고향이 고향처럼 느껴지지 않음 ~ 귀향이 미완으로 남는 경우의 수
그렇다면, 귀향이 미완으로 남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말 그대로 고향의 상실입니다. 전자의 경우는 고향의 물리적 상실을, 후자의 경우는 고향의 정신적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 둘의 공통점인 [고향의 상실]이 귀향을 미완으로 남게 하는 기준일 겁니다.

사실 이는 메타인지로 추론이 가능합니다. (귀향)=(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 ‘고향이 없어짐 & 돌아가지 않음’ 이렇게 두 가지가 귀향을 미완으로 남게 하는 방법일 겁니다. 그러나 이 예시에서 문장의 맨 앞에 ‘고향으로 돌아가더라도’라는 워딩이 있으므로 당연히 ‘고향이 없어짐’이 귀향 미완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국어에서 메타인지적 사고는 매우 자주 나오니 꼭 체화해야겠죠...?

ex) “18세기 북학파들은 청에 다녀온 경험을 연행록으로 기록하여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는 북학론을 구체화하였다. 이들은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주목한 영역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이들의 북학론도 차이를 보였다.” _ 21.12.

→ 첫 문장에는 북학론의 정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B인 A’의 형태로 정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북학론: 청의 문물제도를 수용하자 & 북학론의 구체화: 청에 다녀온 경험의 기록
개인적인 학문 성향과 관심에 따라 ~ ‘~에 따라’라는 표현은 기준을 대놓고 제시해주는 표현입니다. 앞으로 나올 북학파들이 주목한 영역과 북학론은 차이가 있을 것인데 그 기준이 바로 ‘개인적인 학문 성향’ or ‘관심’ 이렇게 두 가지일 겁니다. or 표현이 나왔으므로 경우를 나눠 주어야겠죠.

실제로 이 지문에는(스포) 두 명의 북학파들이 나오며, 그 사람들의 북학론이 ‘연행록의 내용’
→ ‘개인적인 학문 성향’(중화에 대한 의견) → ‘관심’(실용적 면모)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경우와 기준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은 애초에 이 글이 전개될 방향을 알고 시작하는 것과 다름없기에 남들보다 몇 발자국은 앞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5th. 떡밥

시작부터 내가 모르는 용어들이 쭉 나열되거나, 이유를 알 수 없는 결론이 대뜸 제시되면 그 글의 독해 난이도는 비약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글이 언제나 ‘논리적으로’ 제시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뜬금없다는 느낌을 받는 상황은 매우 매우 이상한 상황입니다. 지문에서는 그러한 상황을 최대한 만들고 싶어하지 않을 겁니다. 왜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걸까요? 지문에서 도입부에 **[떡밥]**을 던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제대로 읽고 있다는 가정 하에, 도저히 앞의 내용으로는 풀리지 않는 내용은 결국엔 반드시 뒷부분에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도입부를 만나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자연스럽게 [떡밥]으로 처리하고 뒷내용에 대한 독해의 목적으로 삼아야 합니다. 뒷내용에서는 이 [떡밥]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한 설명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응, 어차피 떡밥 풀리게 되어 있어~. 곧 나온다 이거~’ 이런 생각으로 밀고 나가는 독해를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의 예시들은 맨 첫줄부터 도입부를 일부 실은 것이니, 읽어보면서 떡밥을 찾아봅시다.

ex) “기축 통화는 국제 거래에 결제 수단으로 통용되고 환율 결정에 기준이 되는 통화이다. 1960년 트리핀 교수는 브레턴우즈 체제에서의 기축 통화인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_ 22.11.

→ 첫 문장에는 기축 통화의 [정의]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대뜸 트리핀 교수의 지적이 나옵니다. 이 지적이 이해가 갈 수 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앞에서 알 수 없는(배경지식이 없다는 전제 하에) 내용을 정리하면, ‘브레턴우즈 체제’, ‘달러화의 구조적 모순’이 두 가지일 겁니다. 그래도 첫 문장과 두 문장의 연관성을 따져보면, ‘브레턴우즈 체제에서 환율 결정의 기준은 달러화’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떡밥]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독해의 궁극적 목적은 이제 ‘브레턴우즈 체제에 대한 이해와 그 체제 하의 달러화가 유발하는 구조적 모순’일 겁니다. 실제로 이 지문의 내용은 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첫 문장을 읽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지친 사람과, 능동적으로 떡밥 처리를 해버리고 떡밥을 풀기 위해 노력하면서 독해를 한 사람의 점수 차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을 겁니다.

ex) “16세기 전반에 서양에서 태양 중심설을 지구 중심설의 대안으로 제시하며 시작된 천문학 분야의 개혁은 경험주의의 확산과 수리 과학의 발전을 통해 형이상학을 뒤바꾸는 변혁으로 이어졌다. 서양의 우주론이 전파되자 중국에서는 중국과 서양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가 전개되었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지적 유산에 대한 관심이 제고되었다.” _ 19.11.

→ 과정을 일단 나누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많이 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떡밥]: 경험주의란? / 수리 과학의 어떤 발전이 일어났는지 / 어떤 형이상학이 어떻게 변혁했는지 / 서양의 우주론과 중국의 우주론을 회통하려는 시도에는 무엇이 있었는지 / 어떤 지적 유산에 대해 어떻게 관심이 제고되었는지 ∴ 실제로 이 물음들에 대한 답이 글의 흐름입니다.